

2007년 현대문학상 수상한 소설가 이승우의 작품 세계

다원적 세계를 수용하는 작가

글_임영천(한국문화비평가협회장·조선대 교수)

이승우 작가의 강점은 그 제재의 다양성과 다변화에 있다. 그는 한마디로 표현해 판에 박힌 작가가 아니다. ‘어떤 작가’ 하면 독자에겐 그 작가에 대한 일정한 고정관념이 작용하기 마련인데, 그에게는 대체로 그런 면이 고착돼 있는 것 같지 않다(물론 전혀 그렇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말이다). 그 이유는 그의 예술적 상상력이 너무 강하기-풍부하기-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새로운 세계로 촉수를 뻗치는 기민함을 보인다. 그 도수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처음 그에 대한 어떤 틀을 형성해 있었던(혹은 있으려던) 이들은 다소 놀라고 또 당황해 하기도 한다. 독자를 그렇게 당황하도록 만드는 잠재력이 그에게는 숨어 있다고 할까. 여하튼 그는 재능 있는 작가, 아니 능력 있는 작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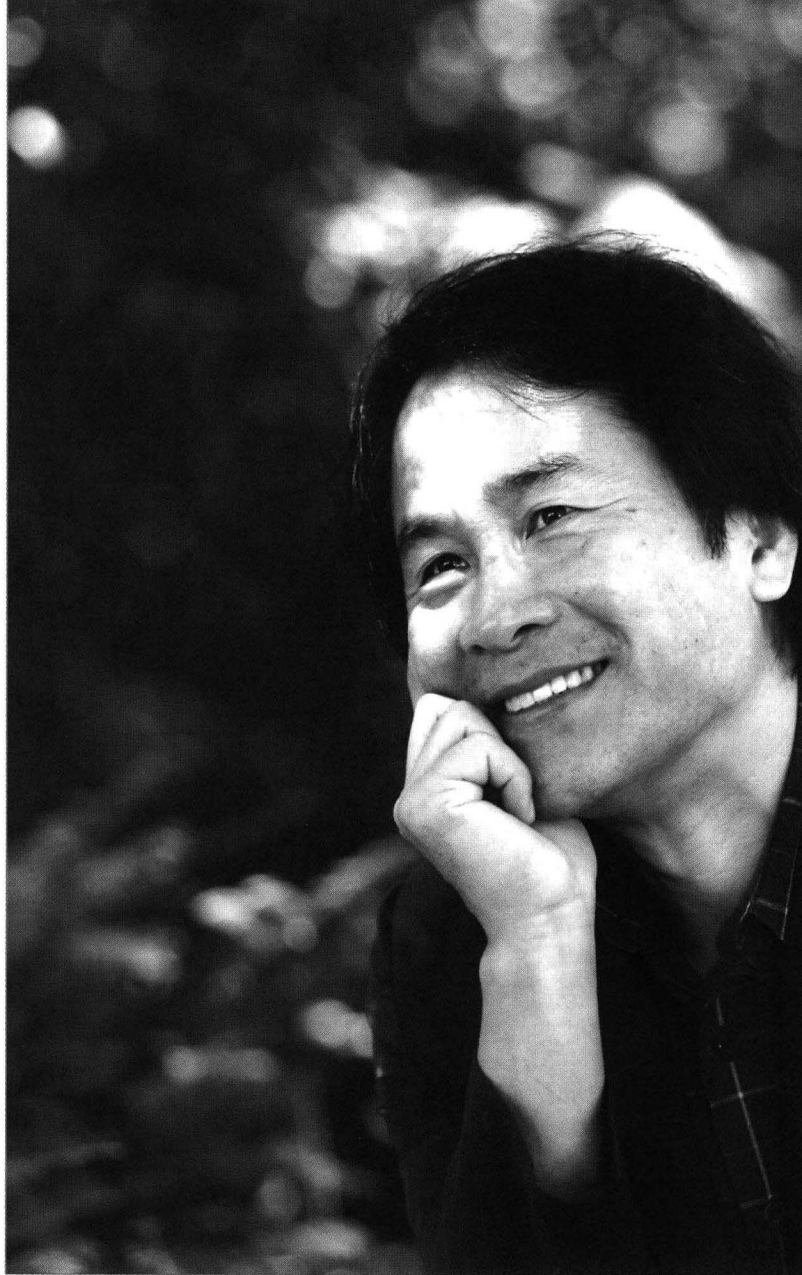
그는 처음 <에리직톤의 초상>(1981)이란 중편소설로 문단에 뛰어들었다. 그는 그로부터 8년의 세월이 흐른 뒤 그것의 속편(1989)을 썼다. 그것들을 묶어 다음해(1990)에는 같은 이름의 장편소설을 펴냈다. 이 작품에는 작가 이승우의 예술적 비밀이 모두 용해되어 있다. 김병욱이란 인물을 통해 보여주는 중도 보수적인 삶의 모습, 최형석이란 인물을 통해 보여 주는 강력한 이상과괴 정신의 표출, 신태혁이란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급진적인 투쟁의 노선, 그리고 정혜령으로 대표되는 균형감각의 여성주의적 자태.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한 편의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형성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소설 속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 1970~1980년대 사회의 자화상이다. 이는 1920~1930년대의 우리나라 사회·정치적 자화상이 황보 염상섭의 장편소설 <삼대> 속에 모두 용해되어 있는 것과 같은 양상이다. <삼대> 속의 원만한 인품의 소유자 조덕기가 <에리직톤의 초상>에서는 온건주의자 김병욱으로, 마르크스 보이 김병화가 여기서는 최형석과 신태혁이라는 분리된 두 모습으로 각기 나뉘어져 나타나고 있으며, 홍경애는 이 작품 속에서 정혜령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양상은 결국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등장하는 세 형제들, 즉 드미트리, 이반, 알료샤 형제의 삶의 모습을 이 작품 속에서 거의 재현해 놓은 것 같다고 표현해 볼 수도 있겠다(이런 특징적 일치의 모습은 앞서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1973)에서 세 주요인물 송민구, 함준태, 윤성호 등으로 이미 나타난 바 있었다). 이 말은 이승우의 문학이 결국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 세계에 맞닿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느 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인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이다.

두 사람의 문학은 첫째, 인간 내면세계(심층심리) 묘파의 문학이란 점. 둘째, 이른바 기독교소설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 셋째, 관념소설로서의 특성이 강하다는 것. 넷째, 다성적 소설의 성격이 매우 짙다는 것 등을 들 수 있으리라. 이 점이 서로 일치하는 두 작가의 작품들이 바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에리직톤의 초상>이라고 하겠다. 이런 이승우의 문학적 특성은 그의 또 다른 장편소설 <생의 이면>(1992)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1993년 대산문학상(제1회)을 수상한 이 작품 속에서 도스토예프스키적인 세계가 더욱 짙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심층심리 혹은 내면세계의 천착이란 면에서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이승우는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포용하는 작가이다. 그래서 그의 작품들은 다원적인 세계를 수용하려 하며, 동



1959년 전남 장흥에서 출생하였으며, 서울신학대를 졸업하였다. 1981년 《한국문학》 신인상에 《에리직톤의 초상》이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소설집으로 《구평목씨의 바퀴벌레》 《일식에 대하여》 《미국에 대한 추측》 《나는 아주 오래 살 것이다》 《심인광고》 등이 있고, 장편소설 《에리직톤의 초상》 《내 안에 또 누가 있다》 《생의 이면》 《식물들의 사생활》 등이 있다. 대산문학상, 동서문학상, 현대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사진제공_현대문학

시에 다성적인 세계를 지향하기도 한다. 다성적인 문학은 열린 정신의 문학이다. 바로 대화의 문학인 것이다. 그의 예술 세계는 이를테면 도스토예프스키적인 대화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래서 그의 소설 작품들은 결코 단순한 세계를 보여주지 않는다. 달리 표현하자면 결코 단선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톨스토이의 소설과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을 구별하게 해준 이 특성이 이광수 문학과 염상섭 문학을 서로 구분 짓게 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의 다른 작가들과 이승우 작가를 분리해서 논할 수 있게 해주는 요인도 역시 그의 문학의 다원적이고 복선적인-단선적이지 않은-특성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는 그의 최근의 작품 《전기수(傳奇叟) 이야기》(2006) 속에서 이른바 알레고리 문학을 선보이고 있다. 이 문학 양식은 복선적인 것을 생명으로 삼는다. 표면적으로 A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B를 말하고자 하는 게 근본 의도인 문학 양식이 바로 알레고리 소설이 아닌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나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등이 고전적인 사례에 속한다 하겠고, 비교적 멀지 않은 시기에 내놓았던 김원일의 《침묵》이나 황석영의 《가객》 등에서도 그 뚜렷한 예를 볼 수 있다.

알레고리 문학은 대체로 사회·정치적인 유형의 것과 종교·도덕적인 유형의 것으로 나누어 보는 게 일반인데, 《전기수 이야기》의 경우, 위의 두 가지 중의 어느 한쪽으로 편제시키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 작품은 사회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의 복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도덕적인 면이 승한 알레고리를 관념적 알레고리라고 부르는 바를 상기한다면 이승우는 《에리직톤의 초상》 이래 여전한 관념소설에의 집착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학예술의 사회전기적(社會傳記的) 의미를 추구하고 있는 이 소설이 중요성을 지니는 것은 작가(화자)와 독자(청자)의 역할 교대를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카니발의 이른바 '뒤집혀진 삶' 또는 '거꾸로 된 세상' 이 작품상에서 구현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대중문화 시대의 배우와 관객의 뒤집힘 또는 그 혼효 현상을 암시해 주었다고 판단된다. 이 점에서 그의 소설은 여전히 카니발적이고 다성적인 세계를 지향하고 있음으로써, 미하일 바흐친이 관심을 경주해 온 문학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문**